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Attitudes toward to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and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among the middle aged

조미영* 조재순**

Cho, Miyoung Cho,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attitudes toward to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and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among 50's in Pusan, Daegu, and Daejeon.

The survey had been completed in 414 respondents with questionnaire during May to June, 2003. The respondents had somewhat active attitudes toward to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Over two thirds preferred to live and work in later together with others rather than individually and nearly half had intention to move to the senior community where work was available to. The attitudes toward to work and leisure and intention to move were differ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to move was differed by attitudes to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키워드: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일 의식, 여가 의식, 입주의사

Keyword :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attitude to work, attitude to leisure, intention to move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일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자립형 노인주거형태인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동안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노인자신의 요구일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 교육수준, 노후준비수준이 향상되는 등 노인의 특성도 달라지고 있으며, 자녀로부터 독립생활을 원하는 경향과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소비와 주거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노인들에게 있어서, 생산적인 일과 여가활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행동범위가 넓지 않은 노인이 일과 여가활동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에 노인이 될 현재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대한 입주의사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 및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입주의사를 알아보고 일과 여가의식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과 여가의식에 따라 입주의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로서 활동능력과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 노인들이 커뮤니티 내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각자 또는 함께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홍형욱 외, 2004). 즉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근접한 지역사회의 특징과 조화를 이루는 노인 주거공동체이며, 커뮤니티의 입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일의 창출을 포함한 각종의 Program을 계획할 수 있다.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연구대상은 2020년 고령사회의 노인이 될 부산,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50대의 중년이며, 이들을 성별, 주택유형별로 유층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총 450부의 자료 중 414부를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증, ANOVA로 최중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표집할 때 통제된 특성으로, 남녀의 비율을 같이 하였다. 연령은 모두 50대로 제한하였으며 55세 미만이 63.8%, 55세 이상이 36.2%로 평균 53.6세이다. 학력은 고졸 및 대학중퇴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고(50.0%), 그 다음은 대졸이상(29.6%), 중졸이하(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보면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소득이 259.3만원이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경제력은 중(57.2%)이 가장 많았으며, 중상과 중하를 모두 포함한다면 93.4%가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50.6%) 또는 건강(39.5%)하며 대부분이 자가(87.8%)를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규모는 30평 미만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0평 이상 40평 미만(38.1%), 40평 이상(22.8%)의 순으로 평균 32.4평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중년층의 노후의 일에 대한 인식

1)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일에 대한 준비는 4점 척도로 된 3개문항의 합으로 알아보았다. 각각의 문항은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후에 내할 일이 있어야 한다(94.5%) 노후에 일할 기회를 찾겠다(78.1%), 노후에 할 일을 고려해 준비한다(4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합의 평균은 2.93이며, 평균을 중심으로 적극적(54.5%), 소극적(45.5%)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중년들은 노후일에 대한 준비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준비(표2) 정도는, 남자의 경우, 학력과 경제력이 높은 집단이, 직업을 가진 집단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적극적인 일 준비를 한 노인들에게 거주와 동시에 원하는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인들이 많이 입주

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성공적인 노인주거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2>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변인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χ ²
		소극적	적극적	계	
성별	남	76(37.3)	128(62.7)	204(100.0)	11.031***
	녀	109(53.7)	94(46.3)	203(100.0)	
	계	185(45.5)	222(54.5)	407(100.0)	
학력	중졸이하	42(52.5)	38(47.5)	80(100.0)	7.688*
	고졸, 대학 중퇴	97(48.3)	104(51.7)	201(100.0)	
	대졸 이상	41(34.7)	77(65.3)	118(100.0)	
	계	180(45.1)	219(54.9)	399(100.0)	
직업	전문, 기술직, 경영, 관리직	27(36.0)	48(64.0)	75(100.0)	20.459***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 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61(36.3)	107(63.7)	168(100.0)	
	전업주부, 은퇴, 무직	92(59.4)	63(40.6)	155(100.0)	
	계	180(45.2)	218(54.8)	398(100.0)	
주관적 경제력	하, 중하	60(47.2)	67(52.8)	127(100.0)	6.702*
	중	111(47.8)	121(52.2)	232(100.0)	
	중상, 상	13(27.7)	34(72.3)	47(100.0)	
	계	184(45.3)	222(54.7)	406(100.0)	

* p<.05 ** p<.01 *** p<.001

2)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노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호는 동식물 기르기가 74.2%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운영(67.9%), 교육장(60.6%), 판매장(49.7%), 탁아소·탁노원(46.2%), 위탁받은 공동작업(45.9%), 민박·펜션(3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시설운영(14.5%)과 교육장(13.2%), 동식물 기르기(12.0%)는 매우 원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이 세 가지 일과 판매장은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미래 노인들은 현재 노인들에게 일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단순수작업위주의 위탁받은 공동작업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판매장과 민박·펜션을 제외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중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달랐는데(표3), 성별로는 남자가 동식물 기르기를 원하는 반면, 여자는 탁아소·탁노원을 더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이 적을수록 위탁받은 공동작업을, 학력이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교육장과 교육관련시설운영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장과 교육관련 시설운영과 같은 일은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이 높은 미래노인의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일로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입주민과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장과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일은 입주민의 특성에 적합한 일이 제공되어야 참여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3> 일반적 특성과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변인	원하지 않음	원함	계	χ²	
동식물 기르기 (채소, 과일, 닭, 오리, 벌 등)	성별	남	39(20.5)	151(79.5)	190(100.0)	5.428*
		녀	60(30.9)	134(69.1)	194(100.0)	
	주거소유 형태	자기 전세, 월세, 기타	80(24.1)	252(75.9)	332(100.0)	5.221*
		계	99(26.1)	281(73.9)	380(100.0)	
시설운영 (도서관, 경로당, 노인회관, 복지관)	학력	중졸이하	34(44.7)	42(55.3)	76(100.0)	9.550**
		고졸, 대학 중퇴	59(31.6)	128(68.4)	187(100.0)	
	재산	1억5천미만	52(38.2)	84(61.8)	136(100.0)	5.997*
		1억5천~3억	37(34.3)	71(65.7)	108(100.0)	
교육장 (복합교육, 인성교육, 상담, 학습지도)	연령	55세 미만	87(35.2)	160(64.8)	247(100.0)	5.338*
		55세 이상	63(47.4)	70(52.6)	133(100.0)	
	학력	중졸이하	38(52.1)	35(47.9)	73(100.0)	8.748*
		고졸, 대학 중퇴	73(39.0)	114(61.0)	187(100.0)	
탁아소, 탁노원운영	성별	남	120(61.5)	75(38.5)	195(100.0)	9.596**
		녀	89(45.9)	105(54.1)	194(100.0)	
	연령	55세 미만	124(49.2)	128(50.8)	252(100.0)	5.883*
		55세 이상	85(62.0)	52(38.0)	137(100.0)	
취락발전 공동체사업	성별	남	63(46.3)	73(53.7)	136(100.0)	7.913*
		녀	57(53.3)	50(46.7)	107(100.0)	
	연령	55세 미만	63(46.3)	73(53.7)	136(100.0)	7.913*
		55세 이상	57(53.3)	50(46.7)	107(100.0)	

* p < .05 ** p < .01 *** p < .001

2.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인식

1)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중년들이 노후여가활동의 준비정도를 알아본 결과, 노년을 고려한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있었으며(73.0%), 경제적 준비도 하고 있는(62.4%)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들은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고,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표4)는 학력과 경제적 조건 그리고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더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여가활동 준비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내의 여가프로그램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어지는 여가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2)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여가활동참여의사를 알아 본 결과 공공단체운영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의사가 70.7%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사회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할 의사(58.9%)와 지역사회 내에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의사(61.5%)도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노후여가활동과 참여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의사(표5)는 건강상태와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여성이 노후여가

활동참여의사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자립형 커뮤니티의 입주자의 여가활동의 참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과 프로그램은 참여의사가 적극적인 노인에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변인	예		아니오		계	χ²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후를 고려	학력	중졸이하	50(63.3)	29(36.7)	79(100.0)	5.978*	
		고졸, 대학 중퇴	140(73.3)	51(26.7)	191(100.0)		
	주거적 경제력	대졸 이상	91(79.1)	24(20.9)	115(100.0)	9.568**	
		계	281(73.0)	104(27.0)	385(100.0)		
노후여가활동에 대해 경제적 준비	건강 상태	건강	78(64.5)	43(35.5)	121(100.0)	10.857**	
		보통	169(75.1)	56(24.9)	225(100.0)		
	월평균 소득	허약	40(87.0)	6(13.0)	46(100.0)	11.248**	
		계	287(73.2)	105(26.8)	392(100.0)		
노후여가활동에 대해 참여의사	재산	200만원 미만	50(57.5)	37(42.5)	87(100.0)	14.692***	
		200 ~ 300만원	53(52.0)	49(48.0)	102(100.0)		
	주거적 경제력	300 ~ 400만원	70(68.0)	33(32.0)	103(100.0)	12.769**	
		400만원 이상	69(72.6)	26(27.4)	95(100.0)		
노후여가활동에 대해 참여의사	주거 규모	1억5천미만	71(52.6)	64(47.4)	135(100.0)	10.322**	
		1억5천 ~ 3억	72(64.3)	40(35.7)	112(100.0)		
	주거적 경제력	3억 이상	95(75.4)	31(24.6)	126(100.0)	12.769**	
		계	238(63.8)	135(36.2)	373(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5>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참여의사	변인	예		아니오		계	χ²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공공단체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의사	성별	남	121(60.8)	78(39.2)	199(100.0)	18.671***	
		녀	161(80.5)	39(19.5)	200(100.0)		
	직업	전문, 기술직, 경영, 관리직	49(68.1)	23(31.9)	72(100.0)	20.148***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 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수산업	100(60.2)	66(39.8)	166(100.0)		
공공단체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연령	55세 미만	166(64.1)	93(35.9)	259(100.0)	8.611*	
		55세 이상	69(49.3)	71(50.7)	140(100.0)		
	건강 상태	건강	110(70.1)	47(29.9)	157(100.0)	13.212***	
		보통	103(51.2)	98(48.8)	201(100.0)		
노인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늘리는데 적극 협력	학력	중졸이하	36(45.0)	44(55.0)	80(100.0)	16.152***	
		고졸, 대학 중퇴	123(62.8)	73(37.2)	196(100.0)		
	주거적 경제력	대졸 이상	85(73.3)	31(26.7)	116(100.0)	16.152***	
		계	244(62.2)	148(37.8)	392(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

1) 일반적 특성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 중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2.5%), 그렇지 않다(23.5%), 그런 편이다(61.7%), 매우 그렇다(12.3%)로 나타나 74.1%가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대한 잠재수요와 입주의사로 볼 수

있다. 노후에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이사할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8.3%), 그렇지 않다(54.8%), 그런 편이다(38.1%), 매우 그렇다(7.1%)로 나타나 45.2%가 이사의사를 보였다. 분석결과(표6),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인의 고독과 무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하면서 모여 사는 곳으로 이사할 의사는 자신이 1억 5천미만 집단이 이사하려는 비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6>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변인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하겠다				
		N	M	N	M			
일반적 특성	자산	1억5천미만	142	2.8	142	2.61	a	
		1억5천~3억	114	2.9	114	2.33	b	
		3억이상	125	2.81	126	2.34	b	
F		0.944		5.803**				
노후 일의 의식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소극적	184	2.68	t=	185	2.22	t=
		적극적	222	2.97	-4.585***	222	2.63	-5.692***
	판매장	원하지 않음	190	2.76	t=	191	2.35	t=
		원함	189	2.91	-2.286*	189	2.50	-2.021*
	위탁받은 공동작업	원하지 않음	207	2.72	t=	207	2.25	t=
원함		175	2.96	-3.560***	176	2.64	-5.235***	
탁아소, 탁노원	원하지 않음	208	2.77	t=	209	2.38	t=	
	원함	179	2.91	-2.059*	179	2.49	-1.506	
노후 여가활동의 의식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후를 고려	예	286	2.85	t=	286	2.43	t=
		아니오	103	2.81	.534	104	2.44	-.102
	노후 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	예	246	2.89	t=	247	2.49	t=
		아니오	148	2.76	2.017*	148	2.36	1.562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	예	280	2.91	t=	280	2.47	t=
		아니오	115	2.69	2.909**	116	2.40	.917
	공공단체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예	232	2.89	t=	233	2.48	t=
		아니오	162	2.77	1.816	162	2.40	1.070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적극 협력	예	244	2.93	t=	244	2.54	t=
		아니오	151	2.70	3.486***	152	2.28	3.429***

* p<.05 ** p<.01 *** p<.001

2)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노후의 일의식에 따른 입주의사(표6)는 노후의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집단과 노후에 판매장, 위탁받은 공동작업을 원하는 집단이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할 의사도 높았다.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이처럼 노후의 일준비가 적극적인 노인들이 입주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경우, 수요가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여가의식에 따른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표6)는, 노후여가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노후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집단이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후의 여가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일과 여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및 제언

첫째, 중년들은 노후의 일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이 달랐다. 현재의 중년들은 노후에도 일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위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일은 주로 1, 2차 산업에 종사한 과거의 노인보다 다양한 특성을 갖춘 미래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중년들은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노후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의사가 다양하였다. 따라서 미래노인을 위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여가활동은 필수요소이며, 여가프로그램은 중년부터 준비한 여가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중년들은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곳으로 이사할 의사도 비교적 많아 일거리는 노후의 주거지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과 여가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를 선호하고 있으며, 노후에 하고 싶은 일과 노후여가활동참여의사가 적극적인 사람이 이사할 의사가 많았다.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원하는 일과 여가가 있을 때 주거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한층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주민의 원하는 일을 테마로 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홍형욱·이경희·최정신·김대년·조재순·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원·(주)지식마당.
2. 홍형욱·유병선(2003). 노후의 일·여가태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3-24.
3.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 건국대학교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4. 국무조정실(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5.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발표.
6. 농촌진흥청(2005).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계획.